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 그룹 재건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시중의 화제는 단연 이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6월엔 진통 끝에 금호고속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다음 목표는 당연히 금호산업이었다.

금호산업은 선대의 유업이다. 결코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절실함이 거기에 있다. 선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불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순조로웠다. 호반건설이 떨어져 나가면서 ‘금호 재건의 꿈’은 한때 9부 능선쯤에 오른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다.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매각 가격으로 1조 원 이상을 불렀기 때문이다. 1조 원은 박 회장에겐 상당히 버거운 금액이다. 어찌어찌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해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금호 재건’이라는 박 회장의 꿈에 누가 찬물을 끼얹는가. 그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보면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주목할 수 있겠다. 왜 그들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매각 협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할 당시 박

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준 바 있다. 이렇게 박 회장을 배려했던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이 호반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되자 미래에셋에 협상 주도권을 넘겼다. 미래에셋이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태껏 금호산업 매각을 주도해 온 곳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석연찮다. 매각 실패나 혹은 혈값 매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고 동문 두 ‘박 회장’의 인연

그러면 산업은행으로부터 협상 주도권을 물려받은 미래에셋은 어떻게 했다. 미래에셋은 금호산업 지분을 8.8% 보유해 단일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결권 기준으로 15%에 해당, 금호산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결국 최근 제시된 매각가격은 업계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실사 결과 금호산업 기업가치는 5300억 원가량으로 산정됐다. 이때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

안갯속으로 빠져든 금호산업의 향방

리미엄 30~40%를 더해 6890억~7420억 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시된 가격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막 나와 일반병실로 옮겨야 하는 환자에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동정의 여론도 나온다. 박삼구 회장이 그동안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재(2200억 원)를 털어 넣는 등 5년 동안 고생한 것을 빚대는 말이다.

호남 연고 기업인 미래에셋의 박현주(57) 회장은 애초 동원증권에서 일하다 1997년 미래에셋캐피탈을 만든 뒤 현재 20여 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금융그룹으로 키워내면서 ‘셀리맨 신화’를 썼던 화제의 인물이다. 박 회장 또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70) 회장과 마찬가지로 광주 출신. 이들 둘은 광주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고교 선후배사이인 이들의 인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다. 당시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은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박삼구 회장을 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금호산업 매각가로 인해 박삼구 회장에게 큰 짐을 안겨 준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참 알 수 없는 게 세상이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물론 미래에셋으로서도 당시 투자했던 원금의 회수가 절실하긴 했을 것이다. 경제는 리모판 따진다면 채권단 입장에선 비싸게 팔면 팔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가격은 공정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 여론이다. 광주 경총이 즉시 성명을 내고 “금호산업이 금호그룹의 품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인수가 무산되면 호남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채권단이 금호의 재기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시장의 공정가치를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남 유일 대기업의 운명은?

한편 터무니없이 높은 매각가가 제시되자 지역경제계에서는 각종 추측과 설이 나돌고 있다. 산업은행이 1조원 이상의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물주를 잡아 놓고 같은 호남 출신 기업인 미래에셋을 내세워서 금호를 제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음모설이다.

설왕설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채권단이 매각가격을 제시한 만큼 박삼구 회장과의 적절한 협상만 남았다. 박 회장은 다음달 23

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인수협상이 실패하면 채권단은 6개월 내에 재매각에 나서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원매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채권자들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설혹 누군가 나선다 해도 호남에는 1조 원의 거액을 감당할 만한 기업이 없다. 그런 점에서 결국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호남의 대기업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지역민들도 많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그동안 흡족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광주고속을 떠올리는 호남 사람들에게 금호는 아련한 향수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 사회는 호남 유일의 대기업인 금호의 재도약을 염원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염원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다시 합리적인 매각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디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미래에셋 박 회장은 그의 자서전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에서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난다”며 “돈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제2남도학숙 608명 규모 2018년 개관

시·도 서울 은평구에 466억 들어

광주시·전남도의 상생과제인 제2남도학숙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18년 1학기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도가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청 옛 별관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기로 한 제2남도학숙은 2인 1실 304실 규모로 총 608명이 생활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 출신 학생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은 부지 5960㎡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업비(466억)의 절반씩 부담해 지어진다.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2018년 1학기부터 기숙사 원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제1남도학숙 규모는 850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1남도학숙은 경영률이 3.5대 1가량 될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 시설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남도학숙의 용적률이 서울시 건축기준을 초과, 현 부지에서는 증축이 어려워 제2남도학숙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유망한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 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제2남도학숙 건립을 공동 추진 과제로 선정할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100여명 채용

오는 8월께 출범할 아시아문화원이 1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은 지난 29일 ‘행정·전문직군 등에 걸쳐 2급부터 5급(을)에 걸쳐 모두 00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인력채용 공고를 냈다. 이들의 신분은 정규직이며 5급(을)은 6개월간 인턴(기간제 근로계약)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시험은 4~5급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직무적성검사)을 거쳐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이 채용인력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정부 부처와 아시아문화원 인력정원을 놓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준비단은 투명한 직원채용을 위해 외부 기관에 직원선발 업무를 의뢰했다.

지원대상자 가운데 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력 등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예정)는 서류심사시 가산점을 받는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및 아시아문화

행정·전문직 2~5급
내달 4~10일 원서접수

개발원직원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8월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https://acc.recruit-center.kr)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콘서트 구축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개편해 오는 8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문화전당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법인이다. 인력채용에 관한 내용은 아시아문화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윤영기자 penfoot@

이렇게 빼어난 계곡이 있었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추천
지리산 달궁계곡 등 10곳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휴가를 보내기에 좋은 ‘숨은 명소’ 계곡 10곳을 30일 추천했다.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계곡이 아니라서 덜 알려졌지만 볼거리, 놀거리가 많고 가족 단위로 지내기에 좋은 곳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리산을 상징

하는 뱀사골계곡 대신 달궁계곡이 가볼 만하다. 계곡을 끼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이 있다. 달궁계곡 일대는 삼한시대 마한의 효왕이 진한의 침략을 받고 피해 궁궐을 짓고 살던 곳으로 전해진다.

덕유산에서는 장장 25km에 이르는 구천동 33경이 있는 구천동계곡 대신 그 반대편에 위치한 칠연계곡을 추천했다. 칠연

계곡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함께 일곱 개의 못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칠연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주왕산은 보통 3개의 폭포가 있는 주왕계곡을 떠올리지만 주왕산 남동쪽에 있는 절골계곡도 빼놓을 수 없다. 죽순처럼 솟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이 있으며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이

자 사진가들의 사랑을 받는 주산지가 있다.

월악산에서는 만수봉과 문수봉 사이의 용하계곡이 맑은 물과 바위를 자랑한다. 소백산에서는 여름 한철만 개방되는 남천계곡이 가볼 만하다. 치악산의 경우 ‘숲속의 정원’을 주제로 한 예코 힐링 야영장이 있고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금대계곡이 있다.

가야산의 흥류동계곡, 설악산의 천봉동계곡, 속리산의 만수계곡, 내장산의 금신계곡도 가족 단위 피서객을 기다린다.

한편 국립공원 7개 야영장(설악산·가야산·주왕산·소백산·남천·태안·학안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숲속 도서관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일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산빌딩 0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산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전남 담양군 삼관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최저가 11억 9천**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일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